

인지언어학에 기반한 ‘돈’의 의미 연구

김정아*

〈 목 차 〉

1. 들머리
2. 연구 배경 및 절차
3. ‘돈’의 의미 양상
4. 마무리

1. 들머리

이 연구의 목적은 관용표현에서 나타나는 ‘돈’의 의미를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특성을 논의하는 것이다.¹ 돈은 자본주의 시대 이전에도 있었고 돈을 대체하는 신용카드, 가상화폐, 주식 등이 대중화된 지금도 존재하며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돈’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

- (1) a. 개미 투자자와 헤지펀드는 대부분 손실을 봤고, 숨죽이며 대량 지분을 보유 중이던 기관 투자자와 내부자들은 예상치 못한 **돈벼락을 맞았다**. (조선일보, 2021.02.19.)
- b. 주주들에게서 자금을 유치하고 펀드에 투자해 **돈놀이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경제, 2020.10.09.)
- c. 매년 1000억원 이상 소멸되던 **눈먼 돈**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어 소비자 이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신문, 2021.01.05.)
- d. 임동규는 구단 안팎에서 오랫동안 ‘형님 아우’ 하는 끈끈함으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돈 찢러줘** 가며 영향력을 키워온 인물이다. (한겨레, 2019.12.27.)

* 말라야국립대학교, 객원교수, piscean00@hanmail.net

1 이 연구에서는 형태적으로 굳어져서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현을 ‘관용표현’이라 정의하고 합성어와 구, 관용구와 같이 신문이나 책, 일상 대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는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벌었을 때 (1a)와 같이 ‘돈벼락을 맞다’라고 표현한다.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이득을 얻는 것은 돈을 버는 쉬운 방법이므로 (1b)와 같이 ‘놀이’로 표현하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적절하게 쓰이지 않는 돈을 (1c)와 같이 ‘눈먼 돈’이라고 한다. 또 어떤 일을 잘 보아 달라고 뇌물을 주는 것을 (1d)와 같이 ‘돈(을) 찔러주다’라고 표현한다. (1)과 같은 표현들에는 언중들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 나타나 있다. 우리는 돈의 영향력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돈벼락), 돈을 버는 것을 쉽게 생각하기도 하며(돈놀이), 돈을 사람으로 여기기도 하고(눈먼 돈), 돈을 예리한 물건으로(돈(을) 찔러다) 생각하기도 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경험과 ‘돈’을 벌고 쓰는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개념 사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개념적 은유가 ‘돈’ 관용표현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지금까지 논의된 ‘돈’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의 주제는 크게 ‘돈’이 포함된 용어, 속담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경제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를 분석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체로 경제와 관련된 표현을 분석하는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O’Connor(1998)는 스페인어에서 고체, 액체, 기체로 나타나는 ‘돈’과 ‘재정’ 은유를 소개했다. 이후 Silaški & Kilyeni(2011), Kövecses(2018), Gibbs(2018)에서도 ‘돈’의 은유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Kövecses(2018)는 ‘돈’과 관련된 표현에 대해서 [MONEY IS A FOREC] 은유를 주장했다. ‘돈’과 관련해서는 [MONEY IS A MOVING SUBSTANCE/OBJECT/LIQUID] 은유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람과 돈의 관계, 돈의 사회적 역할을 보는 방식은 오히려 ‘힘’에 더 가깝다고 했다. Gibbs(2018)는 경제 활동의 역동적인 모습을 사람의 신체적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고, Silaški & Kilyeni(2011)는 영어와 세르비아어, 루마니아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MONEY IS LIQUID] 은유의 대조하여 [MONEY IS LIQUID] 은유는 보편적인 은유이지만 영어, 루마니아어, 세르비아어에서 은유의 정도가 다르거나 분명한 차이를 보임을 설명했다. King(1999)은 영어 관용표현 학습 교재에서 [MONEY IS BLOOD], [MONEY IS FOOD], [MONEY IS DIRTY], [BOTTOM IS SOURCE OF MONEY] 은유로 학습할 수 있는 ‘돈’과 관련된 관용표현을 제시하였다. 돈이 생활에서 중요하고 기본적이므로 음식이나 피와 같이 필수적이고 가치있는 대상으로 표현된다고 했다.

국내에서 돈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경제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를 분석하는 연구가 중심을 이룬다. 경제 텍스트의 은유를 분석한 연구로는 신진원·박기성(2011), 제민경·구본관(2014), 정수진(2015), 심지연(2016) 등이 있다. 신지연·박기성(2001)에서는 경제 텍스트 번역에서 한국어와 영어 간에 나타나는 은유의 차이를 논의하였고, 심지연(2016)은 라디오 경제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은유의 근원영역을 구체물과 추상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러한 은유가 사용된 이유는 전문적 지식을 일반 독자(청자)들에게 쉽게 설명해야 하는 텍스트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였

다. 임혜원(2018)과 방경원(2017)은 최근 화제가 되는 ‘가상화폐’와 ‘주식시장’에 대한 개념적 은유를 분석하였다. ‘가상화폐’와 ‘주식시장’은 전문분야이므로 일반 독자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익숙한 개념인 광물, 유기체, 우주 등을 근원영역으로 한 은유가 나타난다.

단어 ‘돈’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속담을 대상으로 한 방운규(2003), 김정남(2016), 덕약양(2019)의 논의가 있었다. 방운규(2003)는 돈 관련 속담에서 나타난 돈별기, 돈거래/빚, 돈소유, 돈의 효용성, 공돈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분석하였고, 김정남(2016)은 한국어 교육을 위한 관점에서 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표현을 분석하였다. 덕약양(2019)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속담에 나타난 ‘돈’ 은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조·분석하였다. 한편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다. 박순원(2010)에서는 김수영의 시, 황태목(2013)은 김유정 소설, 서보호(2020)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년대 소설에서 나타난 ‘돈’의 의미에 대해서 분석한 바 있다.

‘돈’에 대한 은유는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오래되고 관습화된 은유라고 할 수 있다. ‘돈’과 파생된 여러 경제 활동이 등장하면서 ‘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돈’을 개념화하는 방식은 유지된다. 또한 관용표현에 대한 연구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의 중대한 측면을 밝혀줄 수 있다(Gibbs 1994: 367). 따라서 관용표현에 나타난 ‘돈’의 은유를 살펴보는 것은 ‘돈’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진 보편적인 개념을 살펴보는 연구가 되며 한국어 화자들이 가진 돈에 대한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의 절차로 진행된다. 2장에서는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개념적 은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연구 대상과 방법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관용표현에 나타난 ‘돈’의 개념적 은유를 분석하고 특징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4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2. 연구 배경 및 절차

2.1. 개념적 은유와 관용표현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과 표현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은유적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은유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이다. 임지룡(2008: 165)은 은유적 기제 없이는 온전한 사고가 불가능하며 사고한 바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는 일상적인 사고의 한 방식으로 구체적인 영역에서 추상적인 영역으로 체계적인 사상(mapping)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언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언어, 그림, 음악

등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매체에는 개념적 은유가 드러나 있다. 이것은 관용표현에서도 그렇다.

전통적인 언어관에서 관용표현은 형태적으로 굳어져 제3의 의미로 사용되는 일탈된 언어 형식으로 보았다. 반면 인지언어학에서는 다양한 비유적 의미가 관용표현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고 때로는 언어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Kövecses & Szabó (1996: 345-351)은 대부분의 관용표현이 체계적으로 동기화(motivation)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개념적 은유와 환유, 관습적 지식이 관용표현의 의미에 동기를 제공한다고 했다.²

- (2) a. 최근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가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29.)
- b. 부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월가가 **인플레이션 귀환**의 심각성을 매우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대형 기술주부터 경기순환주까지 시장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연합인포맥스, 2021.03.08.)
- c. **가상화폐 채굴기**는 여러 개의 고성능 CPU 또는 GPU를 연결한 일종의 PC로, 가격은 성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이투데이, 2018.02.05.)

(2)는 경제와 관련된 부동산, 인플레이션, 가상화폐에 대한 기사의 일부이다. (2a)와 (2b)에서는 ‘부동산’과 ‘인플레이션’을 사람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시작하는 것을 사람이 ‘기지개’를 켜는 것으로 표현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귀환’이라고 표현하였다. (2c)에서 가상화폐를 얻는 것은 광물을 캐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어려운 계산식을 풀기 위해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마치 광물을 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³ 이런 표현들은 사람들이 겪는 세상에서의 경험과 경제 활동 사이에서의 유사함이 표현에 동기가 된 것이다. 개념적 은유는 이런 두 영역(근원영역, 목표영역) 간의 유사성에 기반한 사고의 방식이다.

우리가 개념적 은유를 언어로 표현하는 이유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은유가 의사소통에서 갖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Gibbs, 나익주 역 2003: 124-134 참조).

2 동기화(motivation)는 언어의 형태와 의미 사이의 연관성을 말한다. 인지언어학에서는 언어를 개념화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언어의 의미는 개념화의 방식에 의한 것으로 설명한다. 관용표현의 의미도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요소가 표현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동기화에 대해서는 Radden & Panther (2004), 송현주(2015)를 참고할 수 있다.

3 가상화폐 채굴기란 방대한 컴퓨터 자원을 투입해 가상화폐 거래가 유지되도록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의 일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각광을 받고 가상화폐를 얻는 것을 광산에서 값비싼 광물을 캐내는 행위에 빗대 채굴이라고 불리고 있다(연합뉴스, 2019.04.09. 기사 참고).

첫째, 은유는 의사소통에서 글자 그대로의 표현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개념을 표현해 주는 기능을 한다(표현 불가능 가설). 예를 들어 새로운 개념인 가상화폐와 가상화폐의 운용원리를 광물과 채굴이라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둘째, 은유는 글자 그대로의 표현으로는 복잡하고 장황해지는 설명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표현해주는 기능을 한다(압축성 가설). 그동안 부동산 거래가 없었지만 다시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을 ‘기지개를 켜다’라고 설명하면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은유는 우리의 주관적 경험을 글자 그대로의 표현보다 더 풍부하고 상세하고,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주는 기능을 한다(선명성 가설). 가령 인플레이션이 다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귀환’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돈’은 어떤 개념보다도 구체적이지만 심리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구체물로서의 돈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돈은 그렇지 않다. 보지 않는 곳에서 돈은 움직이고 있고 사회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는 돈에 대한 욕망과 도덕이라는 감정을 느낀다. 이런 복잡한 ‘돈’을 생생하고 풍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

2.2.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관용표현에 나타난 ‘돈’의 은유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돈’이 포함되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찾아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합성어에서 관용구, 속담, 인사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⁵ 가령 문금현(1999)에서는 광의의 관용표현과 협의의 관용표현으로 구분하여 ‘광의의 관용표현’은 ‘습관적으로 굳어져 익숙한 표현’으로 정의하였고 ‘협의의 관용표현’은 내·외적 조건에 부합하는 표현이라고 했다.⁶ 또 민현식(2003)에서는 속담과 수수께끼, 금기담, 격언 등도

4 ‘돈’ 이외에도 우리는 ‘금전’, ‘부’, ‘재산’, ‘금’, ‘냥’ 등도 ‘돈’과 유사한 개념으로 여긴다. 하지만, 단어가 갖는 각각의 의미가 다르고 공기 환경이 다르므로 관용표현에서 나타나는 은유 의미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돈’이 가장 중심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돈’에만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5 국어학에서 관용표현에 대한 논의는 김종택(1971)을 시작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김종택(1971)에서는 관용표현이 하나의 의미 단위인 점과 고정된 형태임을 강조하여 ‘이디엄(idiom)’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후의 논의에서는 익숙하게 사용되는 말이라는 점에서 ‘숙어’(심재기 1982; 안경화 1987; 강현화 1987), 구 이상의 결합 형식을 강조한 ‘관용어’ 혹은 ‘관용구’(박영순 1985; 강위규 1990; 심지연 2009; 최지훈 2010; 황화상 2011)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관용표현’(이상억 1993; 양영희 1995; 문금현 1999; 민현식 2003; 박만규 2002; 이동혁 2007; 박진호 2003)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밖에도 Fillmore et al(1988), Nunberg et al(1994), Taylor(2002), Evans(2010), Cruse & Crofr(2004)는 고정되고 특수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idio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Moon(1998)은 형식적으로 고정된 속성을 강조하면서 FEIs(Fixed Expression and Idiom)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관용표현에 포함하였다. 관점에 따라 같은 표현을 다른 범주로 구분하기도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어처구니 없다’는 단어(형용사)로, ‘개밥의 도토리’는 관용구로 분류하고 있지만, 『연세 한국어사전』에서는 ‘어처구니’와 ‘개밥’을 명사로 분류하고 ‘개밥’에서만 관용어 정보를 주고 있다. 이렇게 관용표현의 범주는 연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고 같은 표현이라도 다른 범주로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은 연구의 목적이나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관용표현은 언중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정의할 것이다. 따라서 ‘돈’이 포함된, 합성어와 구, 관용구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로 하였다.⁷ 이미 하나의 표현으로 굳어진 합성어나 구, 관용구를 관용표현으로 보고 해당하는 표현을 『우리말샘』, 최경봉(2014), 〈Trend 21〉말뭉치에서 수집하였다.

『우리말샘』은 개방형 한국어 사전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대폭 수록하고 쉽게 뜻을 풀이를 수정하여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만든 웹사전이다. 현재(2021년 3월) 1,125,558개(단어 741,447개, 구384,111개)의 표제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관용구에 대한 정보도 5,369개가 별도로 제공되고 있다.⁸ 최경봉(2014)은 4,000여 개의 관용어를 의미에 따라 분류한 사전으로 ‘돈’이 포함된 표현뿐만 아니라 상거래와 부유함, 뇌물, 손해, 씹씹이 등 돈과 관련된 표현의 의미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돈’을 포함한 관용표현을 살펴보기 위해 〈Trend 21〉 말뭉치에서 ‘돈’의 용례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Trend 21〉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주요 일간지(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수집하여 가공한 자료로,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는 표현들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⁹ 수집한 용례의 일부를 보이면 (3)과 같다.

- (3) a. 우리말샘: 돈가뭇, 뒷돈, 돈벼락, 돈지랄, 부죈돈, 떼돈, 회삿돈, 돈방석에 앉다, 돈더미에 깔리다…
- b. 최경봉(2014): 돈을 까먹다, 돈을 굴리다, 돈벼락(을) 맞다, 돈을 만지다, 돈을 뿌리다, 코 묻은 돈…
- c. Trend 21: 돈정치, 돈검사, 돈선거, 종잣돈, 정부돈, 돈을 풀다, 돈을 숨기다, 돈을 맡기다, 돈으로 움직이다…

6 내적인 조건으로는 의미·수사적 조건(구성요소와의 의미적 유연성이 없고 죽은 은유일 것), 형태·통사적 조건(둘 이상의 단어로 결합, 통사적 제약이 있을 것)이 있고 외적인 조건에서는 공식적으로 대중성과 광역성을 가질 것, 통사적으로는 지속성과 역사성을 기준으로 들었다(문금현 1999: 35-39 참조).

7 ‘돈’과 관련된 관용표현에는 속담도 상당수 포함된다. 하지만 속담은 통사적 제약이 있어 용례를 추출하기 쉽지 않았고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8 『우리말샘』의 범주별 통계를 참고하였다. (<https://opendict.korean.go.kr/main>)

9 Trend21 말뭉치 (<http://corpus.korea.ac.kr/>)

이렇게 수집한 관용표현에서 ‘돈’의 의미를 분석하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적 은유를 찾아 분석하였다. 자세한 의미 분석을 위하여 사전의 뜻풀이와 용례, <21세기 세종계획 형태분석 말뭉치>, 인터넷 뉴스 기사의 내용을 참고하였다.¹⁰

3. ‘돈’의 의미 양상

3.1. ‘돈’의 기본의미

‘돈’은 지폐나 동전과 같이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경제 운용의 수단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지칭하기도 한다. 우선 ‘돈’이 가진 기본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은유적 의미와의 관련성을 찾아보기로 한다. 『우리말샘』에서는 ‘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4) a.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 예전에는 조가비, 짐승의 가죽, 보석, 옷감, 농산물 따위를 이용하였으나 요즘은 금, 은, 동 따위의 금속이나 종이를 이용하여 만들며 그 크기나 모양, 액수 따위는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 b. 물건의 값.
- c. 재물이나 재산을 달리 이르는 말.
- d. 무엇을 하는 데 드는 비용.

(4a)는 구체물로서의 ‘돈’에 대한 정의로 종이, 금속 등으로 만들어져 사물로 유통되는 ‘돈’을 말한다. (4b), (4c), (4d)는 가치를 측정하는 기능에 초점을 둔 의미이다. ‘돈’은 물건, 재산, 행위하는 데 드는 노력 등의 가치를 환산하는 기능을 한다.

- (5) a. 오토바이를 이용한 20대 2인조 은행 앞 날치기범이 1시간 사이에 두 차례나 은행에서 돈을 찾아 나오던 여경리 사원 2명의 **돈 가방**을 차례로 빼앗아 달아났다.
- b. 그는 고의춤 속에 손을 넣어 **돈주머니**를 꺼내 들었다.
- c. 불우 이웃 돕기 모금에 **쌌짓돈**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돈’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구체물로서의 동전이나 지폐를 말한다. 따라서 돈을 넣은 가방,

10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예문은 <21세기 세종계획 형태분석 말뭉치>와 『우리말샘』의 용례를 인용하였다. 이 경우에는 따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고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 인용한 예문은 출처를 명시하였다.

주머니 등과 결합한 (5)의 예들은 모두 동전이나 지폐와 같은 구체물로서의 돈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돈’은 ‘재산’이나 ‘재물’을 의미한다.

- (6) a. 그때 나는 대번에 “절대 안 됩니다. **은행 돈**이나 **남의 돈**은 특히나요. 투기는 무조건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 b. 이 제도는 **고객 돈**이 기반이 되는 보험사 등이 특정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 c. 그네들이 말하는 월급 생활이란 육체 노동이기보다 넥타이를 갈아매어야 제격이 될, 그런 직업으로 **젓돈**과 적금을 부어 가며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뜻하는 거였다.
- d. 만기까지 월 8만원을 꾸준히 납입한 청년은 1천만원가량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주경제, 2021.03.05.)
- e. 그동안 잊고 살았던 취미와 작은 재능으로 **돈을 벌**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헤럴드경제, 2021.02.26.)
- f. 이 무렵부터 모차르트는 친구들에게 **돈을 꺾달리는** 편지를 썼다.(한겨레, 2020.07.17.)

(6)은 재산의 의미를 갖는 ‘돈’의 예이다. (6)에서 ‘돈’은 고객, 은행, 남, 계, 회사에서 소유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재산과 재물의 의미를 갖는다.

또 ‘돈’은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 (7) a. 집을 수리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 b. 3년 안에 결혼하기로 마음먹었거나, 지금 결혼을 준비 중인 남녀들이라면 대부분 **돈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투스, 2012.08.24.)
- c. 한국에 있는 친지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부족돈** 때문에 못 살겠다.” 라는 말을 가끔 듣는다. (제주의 소리, 2011.03.25.)

(7)에서 ‘돈’은 집을 수리하고 결혼을 하고 부조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요컨대, ‘돈’은 기본의미로 동전이나 지폐, 물건이나 행위에 대한 비용, 재산, 재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돈’은 기본의미에서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도덕적 가치에 따라 개념화된다.

3.2. ‘돈’의 은유적 의미

3.2.1. ‘돈’은 물이다

아마도 ‘돈’에 대한 가장 많이 알려진 은유는 [돈은 물] 은유일 것이다(O’connor 1998; Silaški

& Kilyeni 2011; 전혜영 2020).¹¹ 물이 갖는 기본적인 속성인 ‘흐름’을 근원영역으로 하여 ‘돈’이 사회에서 유통되는 현상을 표현한다. 다음은 [돈은 물] 은유의 예이다.

- (8) a. 특히 작년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정부들이 많은 돈을 찍어내거나 빌렸고, 썼다. 그 **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어왔다**. (오마이뉴스, 2021.01.26.)
- b. **돈이 넘치나면서** 세계 경제 곳곳에 거품이 끼었고 거품 붕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우려된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23일(현지시간) 칼럼에서 경고했다. (파이낸셜뉴스, 2005.03.24.)
- c. 냉장고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돈이 새어 나간다**. 이미 있는 재료를 또 사오기도 하고 미리 사두었던 음식을 보지못해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산일보, 2021.03.03.)
- d. 이렇게 **돈이 고여 있다** 보니 돈이 얼마나 잘 도는지 나타내는 ‘통화유통속도’는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SBS뉴스, 2021.01.26.)

(8)의 예에서 ‘돈’은 흐르고 넘치며, 새거나 고여 있다. 즉 [돈은 물] 은유가 사용된 표현들이다. 근원영역으로서 ‘물’은 흐르고 넘치고 고이고 새고 스미는 속성이 부각된다(전혜영 2020: 124-135)¹². ‘물’의 이런 속성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흐른다’는 것이고 ‘돈’ 또한 사회에서 ‘유통’된다는 기본적인 속성이 닮아 있다. 그리고 ‘물’은 쏟고 뿌릴 수 있으며 기온이 낮으면 얼기도 한다.

- (9) a. 없는 **돈을 쥐어짜** 식당 입구에 놓을 300만원 상당의 자동 체온 측정기까지 구매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줄어든 손님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2020.12.14.)
- b. 기초과학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국가경제가 망하지 않는다. 단 5년 동안 4대강에 22조원을 내다버리고도 나라가 멀쩡하다. (경향신문, 2021.02.25.)
- c. 월스트리트 금융가 그들은 겁에 질려 돈을 옮기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얼어** 냉동되듯 압류되어 묶이기 전에 돈을 옮기기 위해 ‘자금세탁’을 하려고합니다. (브레이크뉴스, 2021.02.02.)
- d. 마이너스통장 무서운 줄 모르고 마구 쓰다가 가계가 거덜 나듯 선거와 지지층 표를 의식

11 O’connor(1998)는 [돈은 기체] 은유를 제안하였다. ‘His money volatilized.’, ‘His funds evaporated.’, ‘The money is ated.’, ‘His wealth dissipated.’, ‘The market exploded.’의 예를 통해 [돈은 기체] 은유를 설명했다. 기체 분자가 팽창하고 폭발하고 날아가 것은 개인이 소유한 돈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과 시장에서 돈을 거래하는 양에서 파생되는 문제와 같다고 했다.

12 전혜영(2020)은 ‘물’을 근원영역으로 한 감정, 시간, 분위기, 소리, 이념, 돈, 정보, 사람 등의 은유를 논의하였다. 이 논의에서 ‘돈’은 물의 흐르는 속성과 넘치는 속성에 의한 은유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해 선심성 사업에 **돈을 뿌리다**간 재정이 파탄 나고 국가신용등급도 추락한다. (더스쿠프, 2020.10.12.)

(9)에서는 물의 또다른 속성을 통해 돈이 개념화된다. (9a)에서 ‘쥐어짜다’는 힘을 가해서 액체를 짜내는 것으로 ‘돈’은 액체를 가지고 있으며 돈을 쥐어짜는 행위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9b)에서 ‘쏟아붓다’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고 (9c)에서는 액체 상태에 있는 ‘돈’이 언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돈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9d)에서 돈을 뿌리는 것은 마치 물을 뿌리는 것처럼 아끼지 않고 많이 사용하는 것을 표현한다. (9)와 같이 물은 흐르는 속성 이외에도 열고 쏟고 짤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돈이 사용되는 과정도 물의 이런 속성과 유사하다.

요컨대, ‘돈’이 사회에서 사용되는 것은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 막히거나 고이거나 새어나갈 수 있다. 또 돈을 모으거나 사용하는 것은 물을 짜고 붓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돈은 물] 은유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3.2.2. ‘돈’은 힘이다

‘돈’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물건이기도 하지만 소유하기가 쉽지는 않다. 또 ‘돈’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돈’의 영향력은 [돈은 힘] 은유를 통해서 나타난다. ‘돈’이 가진 영향력은 다양한 형태의 ‘힘’으로 표현된다. ‘힘’은 자연의 힘, 물리적인 힘, 사회적인 힘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10)은 [돈은 자연의 힘] 은유의 예이다.

- (10) a. 개미 투자자와 헤지펀드는 대부분 손실을 봤고, 숨죽이며 대량 지분을 보유 중이던 기관 투자자와 내부자들은 예상치 못한 **‘돈벼락’**을 맞았다. (조선일보, 2021.02.19.)
- b. ‘과일가게’로 **돈바람**을 일으키는 아내로 변신한 성공비법이 공개된다. (뉴스컬처, 2019. 11.05.)
- c. 부가 ‘100조 원+ α ’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놓았지만 중소기업에선 **‘돈가뭄’**을 호소하는 아우성이 끊이지 않는다. (동아일보, 2020.06.09.)

일상에서 ‘돈’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 벌고 사용하는 도구이지만, 사람이 통제하기 쉽지 않은 ‘힘’을 가진 대상으로 개념화된다. 그래서 ‘돈’은 사람이 통제하기 힘든 자연 현상인 벼락과 바람으로 개념화된다. (10a)의 ‘돈벼락’과 (10b)의 ‘돈바람’은 돈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꺼번에 많이 생긴 것을 의미한다. 반면 (10c)의 ‘돈가뭄’은 ‘돈’이 지나치게 없는 상황을 나타

낸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중소기업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돈 가뭄’이라고 하였다.¹³ (10)은 가뭄이나 벼락 같은 자연 현상을 사람이 통제하기 어려운 것처럼 돈이 들고 나가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의 (11)은 [돈은 물리적인 힘] 은유의 예이다.

- (11) a. 반면 정부의 **돈폭탄**에 힘입은 고정 자산 투자 증가율은 지난달 33.0%로 고공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경제, 2009.10.12.)
- b. 선수들의 연봉 합산만 해도 저들은 우리 선수들의 열배 이상으로서 몸값이 수백억원인 선수가 여럿 된다. 꼭 **‘돈이 장사’**라고 해서만 하는 말이 아니다. (세계일보, 2006. 06.20.)
- c. 그는 주식이 올라 **돈더미에 깔리게** 되었다.
- d. 당시 나는 **돈에 쪼들려** 경기도 원당에서도 버스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는 시골마을 노인정을 작업실로 빌려쓰고 있었다.

(11)에서 ‘돈’은 물리적 힘을 가진 ‘돈’을 나타낸다. (11a)의 ‘돈폭탄’은 매우 많은 돈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을 이르는 말로 돈을 투자하는 모습이 상당히 전투적이고 투자 효과가 강력함을 의미한다. (11b)의 ‘장사’는 몸집이 우람하고 힘이 센 사람으로 신체적으로 힘이 강한 사람을 말한다. ‘돈이 장사’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의 힘을 나타낸다.¹⁴ (11c)의 ‘돈더미에 깔리다’는 돈이 갖는 무게를 강조하고 있고, (11d)에서 ‘돈에 쪼들리다’는 돈이 넉넉하지 않아 생활에 시달리거나 부대끼어 괴롭게 지내는 상태를 뜻한다. (11)에서 ‘돈’은 힘이 세거나 무겁고, 물리적 힘이 있는 대상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돈’은 사회적인 관계나 역할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다음은 [돈은 사회적인 힘] 은유이다.

- (12) a. 과거의 **돈선거**는 후보자 본인이 자기 돈이나 남에게서 받은 뇌물을 뿌리는 식이었다. (이태일리, 20201.02.21.)
- b. **돈정치**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 언급하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버니 샌더스가 풀뿌리 모금으로 선거자금을 조성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뉴시스, 2016.04.26.)

13 비는 물의 일종이므로 ‘돈 가뭄’은 [돈은 물] 은유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가뭄’을 자연의 힘(물)에 의한 어려움이라 보고, ‘돈 가뭄’은 자연의 힘을 근원영역으로 한 [돈은 자연의 힘] 은유로 분석하였다.

14 비슷한 표현으로 ‘돈은 제갈량’이라는 표현이 있다. 제갈량(181~234)은 중국의 정치가로 유비(161~223)를 도와 통일을 이끈 지략가로 알려져 있다. ‘돈은 제갈량’이라는 표현도 뛰어난 지략가인 제갈량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것과 같이 ‘돈’도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 c. ‘돈이 양반’이라는 말이 있다. 돈은 인간관계마저 변화시킨다. (현대불교신문, 2018. 10.07.)
- d. 돈이면 지옥문도 열 수 있는 세상이다. <삼악도>는 그런 세상의 단면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오마이뉴스, 2011.08.11.)
- e. 가령 빌 게이츠 재산 중에 원도 제품 판매해서 번 돈은 거래로 번 돈, 즉 일해서 번 돈입니다. 반면 주가가 뛰어서 번 돈은 투자로 번 돈, 즉 돈이 돈을 번 돈이죠. (조선비즈, 2011.09.26.)

‘힘’은 다른 물체를 움직이게 한다. (12)에서 ‘돈’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 즉 언중들은 ‘돈’을 사회적인 작동의 동력으로 인식한 것이다. (12a)와 (12b)의 ‘돈선거’와 ‘돈정치’는 정치와 선거에서 ‘돈’을 이용해서 지지자들과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의도한 결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12c)와 같이 돈이 있으면 양반과 같은 신분으로 행세할 수 있고, (12d)와 같이 돈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보이기도 한다. (12e)에서 ‘돈’은 돈을 버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돈’은 자연적인 힘, 물리적인 힘 이외에도 사회적인 신분, 관계,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힘’을 가진 것으로 개념화된다.

한국어에서 이런 [돈은 사회적 힘] 은유는 특히 속담에서 자주 나타난다.

- (13) a.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 b. 돈이라면 호랑이 눈썹이라도 빼온다.
- c. 돈이 없으면 적막강산이요 돈이 있으면 금수강산이라.
- d. 염라대왕도 돈 앞에는 한쪽 눈을 감는다
- e. 돈이면 나는 새도 떨어진다.

(13)은 돈의 사회적 힘을 나타내는 속담이다. 방운규(2003: 28)는 한국어의 속담에서 돈의 효용성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은 ‘돈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한 면이 있으며, 이것은 한국인들이 ‘돈’의 효용성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인 가치 중에서 부정적인 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요컨대, ‘돈’은 벼락, 가뭄, 장사, 폭탄 등과 같이 ‘힘’을 가진 대상으로 개념화된다. 이것은 ‘돈’과 ‘사람’의 역학관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즉, 언중들은 ‘자신’과 ‘돈’의 관계를 ‘힘’에 의해 유지되는 관계라고 보고 있다. 사람과 돈의 상호 작용은 다양한 형태와 규모를 가질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작용의 원리를 ‘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3.2.3. ‘돈’은 생명체이다

‘돈’은 생명을 가진 생명체로도 나타난다. 우리는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때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근원영역으로 하여 어렵고 추상적인 목표영역을 쉽게 이해한다. ‘돈’을 우리와 같은 생명체로 여기는 것은 실체가 없는 돈의 움직임을 구체적이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돈을 사람, 동물, 식물과 같은 익숙한 대상으로 개념화한다.

- (14) a.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내 나랏돈을 축내는 사례가 흔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도 나랏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YTN, 2019.09.14.)
- b. 충동구매를 하거나 씹씹이가 해폰 사람에게 “**돈지랄** 좀 그만해.”라고 말해본 경우가 있을 것이다. (매일경제, 2020.10.01.)
- c. 먼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는 지역 내 소비의 부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 지역에서 돌고 돌아야 한다는 ‘역외유출 예방’을 뜻하며, 이는 내부에서 돈이 돌게 됨에 따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돈맥** 곳곳에 흐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마이뉴스, 2021.02.01.)
- d. 그는 착실히 일은 안 하고 허황되게 **떼돈**을 벌 궁리만 한다.

(14)는 [돈은 생명체] 은유 중에서 ‘사람’으로 개념화한 예이다. (14a)에서 ‘눈먼 돈’은 시력을 잃은 돈으로, 주인이 없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돈을 의미한다. (14b)의 ‘지랄’은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돈지랄’을 분별없이 돈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14c)는 막히지 않고 흐르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있는 맥¹⁵과 같이 돈이 유통되는 것을 ‘돈맥’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13d)의 ‘떼’는 ‘목적이나 행동을 같이 하는 무리’로 ‘떼돈’은 무리지어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 혹은 ‘갑자기 번 많은 돈’을 의미한다.¹⁶

- (15) a. 그는 이어 “제가 돈에 너무 한이 맺혀서 **돈벌레**처럼 열심히 돈을 벌었다.”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메말랐다. 다 편애에서 비롯됐다”고 털어놨다. (톱스타뉴스, 2021.02.01.)
- b.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맥골드릭은 연봉에 대한 불만으로 골드만삭스와 결별했고 최근 요동치는 세계 금융시장과 관련, 헤지펀드 사업가로 ‘**돈사냥**’의

15 『우리말샘』에 의하면 ‘맥’은 ‘심장의 박동으로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얇은 피부에 분포되어 있는 동맥의 벽에 닿아서 생기는 주기적인 파동’으로 ‘맥이 뛰다’, ‘맥이 끊기다’, ‘맥이 빠르다/느리다’ 등으로 쓰인다.

16 최형용(2012: 268-270)에서 ‘떼’는 ‘떼과부’, ‘떼거지’, ‘떼강도’, ‘떼도둑’와 같이 사람과 결합하여 ‘무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사물(떼구름, 떼돈)과 행위성명사(떼죽음, 떼울음, 떼도망)와 결합할 경우에도 의미 차이는 있지만 ‘무리’를 나타낸다고 했다.

2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2007.08.18.)

- c. 부산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000만 원씩을 입금해준 뒤 만 20세가 되면 이자를 더해 2000만 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대학 학비나 창업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일보, 20201.02.04.)

(15)에서는 ‘돈’을 동물과 식물로 개념화하고 있다. (15a)와 (15b)는 돈을 벌레와 동물로 나타내었고 (15c)는 식물로 나타내고 있다.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을 낮잡아 ‘돈벌레’로 표현하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돈사냥’으로 표현했다. (15c)의 ‘종잣돈’은 수확을 위하여 식물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 목적으로 모아둔 돈을 말한다.

생명체를 근원영역으로 한 은유는 특히 경제 은유에서는 보편적이다. 생명체는 ‘탄생 → 발달/성장기(→ 질병 → 회복) → 전성기 → 쇠퇴기 → 죽음’의 주기를 경험한다. 이런 보편적인 경험이 경제 활동이나 기업의 순환주기를 이해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정수진 2015: 275). 하지만 ‘돈’을 목표영역으로 한 [돈은 생명체] 은유는 생명의 주기보다 ‘힘(통제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3.2.2.에서 살펴본 [돈은 힘] 은유에서 ‘돈’은 사람이 통제하기 힘든 ‘힘’을 가진 대상으로 개념화된다. 하지만 [돈은 생물체] 은유에서 ‘돈’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된다. 즉 돈을 사람이나 동물, 식물로 개념화하면서 사람과 동등하거나 사람보다 가치가 낮음을 표현한다. 이것은 ‘돈’에 대한 개념화가 다른 경제 현상의 개념화와는 다른 방식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존재의 대연쇄 은유(The Great Chain)에 의하면 사람은 동물과 식물을 통해 개념화되고, 동물은 사람과 식물, 식물은 사람과 동물에 의해 개념화된다(Kövecses 2010). 이때 사람, 동물, 식물, 사물은 각각 인정되는 가치의 척도가 다른데, 가장 상위에 사람이 있고, 동물, 식물이 각각 다음 층위에 있다. 하지만 ‘돈’은 가장 아래 층위에 있는 ‘사물’이지만 가치의 척도는 다양한 층위에서 나타난다. 돈의 다양한 쓰임, 역할이 [돈은 생명체] 은유에 기여하지만 무엇보다 ‘돈’과 사람의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

3.2.4. ‘돈’은 물건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돈’을 물건으로 개념화한다. 물건이 갖는 모양과 쓰임 등은 돈을 사용하고 얻을 때의 속성을 잘 나타낸다. 다음은 [돈은 물건] 은유의 예이다.

- (16) a. 임동규는 구단 안팎에서 오랫동안 ‘형님 아우’ 하는 끈끈함으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돈 찢러줘** 가며 영향력을 키워온 인물이다. (한겨레, 2019.12.27.)
b. 아무리 **몽칫돈**을 찢르고 별수를 다 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 c. 문제는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보험사도 **돈을 굴려** 돈을 벌기가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KBS뉴스, 2018.08.16.)
- d. 그는 새로운 상품의 개발로 **돈을 만지게** 되었다.
- e.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확정된다면 선수단은 보너스로 **돈방석**에 앉는다. (스포티비뉴스, 2021.02.22.)

(16)의 ‘돈’은 ‘물건’이다. (16a), (16b)은 어떤 일을 위해 뇌물을 주거나 다른 사람들 모르게 돈을 준다는 의미로 ‘돈’은 날카로운 물건, 주사기, 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사사로운 목적으로 넌지시 상대방에게 조심스럽게 전해야 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16c)와 (16d)에서 돈은 손으로 만지거나 작동할 수 있는 물건이다. (16e)의 돈방석은 올라앉다, 앉다와 함께 쓰여 많은 돈을 가지게 됨을 나타낸다. 방석은 따뜻하고 편안하게 앉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으로 사람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앉았을 때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돈을 얻게 된 사람의 만족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17) a. 예심 6개월 하면서 권력 있는 사람들은 ‘병 치료하기 위해 그랬다.’는 핑계를 대기도 하고, **돈을 먹이는** 등의 수법으로 빠져나갔었다.”고 설명했다. (테일리 NK, 2019. 05.01.)
- b. 그리고 가족들의 질병이나 사고, 혹은 투자 실패 등으로 저축한 **돈을 까먹는**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7)에서 ‘돈’은 음식이다. (17a)의 ‘돈을 먹(이)다’는 뇌물을 주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17b)의 ‘돈을 까먹다’는 가진 가진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두 표현 모두 물건 중에서도 돈을 음식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물건’은 사람이 선택하고 이용하며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다. [돈은 물건] 은유도 [돈은 생명체] 은유와 같이 ‘돈’은 사람이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3.2.5. ‘돈’은 부정이다

사람들은 돈을 갖기 원하고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하지만 ‘돈’은 부정함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돈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경험했으므로 늘 도덕적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 (18) a. 무엇보다 외부에 밝힐 수 없는 **검은 돈**이었다면 랜딩이 홍콩 증시에 공시하고 경찰에 신고했겠느냐는 의견도 있다.(뉴스1, 2021, 01.14.)
- b. 이들은 실제 통장 주인을 섭외해 **돈세탁**에 활용했다. 대부분 가정주부로 조사된 통장

주인들은 자신들이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형태로 정당한 일을 한 것으로 착각했다. (조선일보, 2021.02.27.)

- c. 미소는 사라지고 **돈때만** 묻은 ‘미인도’. (시사저널, 2017.05.06.)
- d. 이어 “애타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알고도 판매자들은 **돈독**이 올라 자신들만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서로서로 도와줘야할 시점에 내 이익만 챙기는 판매자들의 횡포를 막아주시고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부산일보, 2020.02.03.)
- e. A씨는 주로 새벽시간대 인적이 드문 인형뽑기 매장을 선택해 큰 몫을 뽑을 때 쓰는 연장인 배척으로 5분만에 현금교환기를 부숴 **돈을 털고** 달아났다. (뉴스1, 2017. 02.23.)
- f. 은식기 절도행위를 용서받고서도 그보다 훨씬 하찮은 어린아이의 **코 묻은 돈**조차 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성보다 본능이 앞선 자신에게 스스로 치를 떨었을 것이다. (아시아경제, 2020.03.27.)

(18)에서 ‘돈’은 모두 더럽고 오염된 것으로 인식된다. (18a)의 ‘검은 돈’은 부정적인 돈으로, 이것은 ‘검은’이 갖는 의미 때문이다. 검은색은 ‘어둠’이라는 환경 요소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둠은 곧 볼 수 없는 조건을 뜻한다. 따라서 ‘검은’은 곧 ‘볼 수 없다’를 의미한다. 주보현·박기성(2019: 200-201)은 ‘검은색’은 ‘수단과 행위가 옳고 그른지 구분할 수 없다’ → ‘수단과 행위가 분명하지 않은’ → ‘정당하지 않은, 받아들일 수 없는’으로 의미가 확장된다고 했다. 즉 검은 돈은 부정한 돈, 정당하지 못한 돈을 나타낸다. (18b)의 ‘돈세탁’은 정당하지 못한 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당한 돈처럼 탈바꿈하여 자금 출처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일을 의미한다. 부정적으로 얻은 돈을 감추는 것을 더러운 옷을 세탁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18c)와 (18d)에서 ‘돈’은 ‘독’과 ‘때’가 있는 것으로 돈을 지나치게 쫓는 ‘욕심’과 관련된 표현이다. (18e)에서 ‘털다’는 무언가 붙어 있는 것을 떨어지게 하는 행동으로 보통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이다. (18f)의 ‘코 묻은 돈’은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돈을 의미하는데, 주로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용해 이득을 얻으려고 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사람들의 욕심, 불법 행위가 반영된 ‘돈’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돈’은 검고,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4. 마무리

이 연구에서는 관용표현에 나타난 ‘돈’의 의미를 분석하고 특성을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돈’이 유통되는 과정은 흐르고 고이고 새어나가는 ‘물’의 속성과 닮아 있다. 또 ‘물’이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얼고 뿌려지는 것과 같이 ‘돈’도 사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는다. 이것은 [돈은 물] 은유를 통해 ‘돈이 흘러넘치다’, ‘돈을 쏟아붓다’, ‘돈을 뿌리다’와 같이 표현한다.

둘째, ‘돈’은 사회에 강한 영향을 끼친다. 돈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돈’의 힘은 사람이 통제하기 어려운 ‘자연의 힘’(돈가뭄, 돈벼락)이나 ‘물리적 힘’(돈폭탄, 돈이 장사)으로 나타난다. 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힘’(돈이 돈을 번다, 돈선거, 돈정치)으로도 나타난다.

셋째, [돈은 생명체] 은유에 ‘돈’은 사람, 동물, 식물로 개념화된다. ‘돈’은 사람과 같이 시력이 있고(눈먼 돈), 행동을 할 수 있으며(돈지랄) 무리를 이룰 수도 있다(떼돈). 돈은 사냥할 수 있는 동물(돈사냥)과 식물(종자돈)로 인식되기도 한다.

넷째, [돈은 물건] 은유에서 ‘돈’은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개념화되며(돈을 찌르다),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굴릴 수 있는 물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돈을 만지다, 돈을 굴리다). 또 ‘돈’은 먹거나 까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개념화된다(돈을 먹다, 돈을 까먹다).

다섯째, 돈은 늘 부정적으로 벌고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돈’을 벌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늘 도덕적 가치를 경계해야 한다. [돈은 부정] 은유는 이런 도덕적 가치를 경계하는 은유이다. 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검은 돈) 욕심을 내는(돈독) 것은 더러운 것으로 인식되어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돈세탁, 돈을 털다).

‘돈’을 개념화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채롭다. ‘돈’은 사물이지만 사람보다 더 힘이 있는 대상이기도 하면서 사람과 같거나 더 가치가 낮은 동물, 식물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것은 ‘돈’을 대하는 ‘사람’의 감정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돈을 벌고 사용하는 일상에서 항상 도덕적 가치를 염두에 둔다. 따라서 벌고 사용하는 상황과 늘 경계하는 상황이 혼재하면서 ‘돈’이 개념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돈’이 포함된 표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든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최근 돈과 관련된 용어(세금, 신용카드, 자금, 경제, 주식)는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런 용어에서 나타나는 은유를 함께 분석해 본다면 ‘돈’과 관련된 한국인들의 개념 체계를 더욱 상세하게 살펴볼 것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위규(1990). “우리말 관용 표현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현화(1987). “국어 속어표현에 대한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남(2016). “‘돈’ 관련 한국어 관용 표현의 의미와 분포-한국어 어휘 교육의 관점을 지향하며-”, *한국어와 문화* 19,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33-53.
- 김종택(1971). “이디엄(idiom) 연구”, *어문학* 25, 한국어문학회, 97-116.
- 덕약양(2019). “한중 돈 관련 속담에 나타난 은유의 인지적 분석”, *중국인문과학* 73, 중국인문학회, 481-503.
- 문금현(1999). *국어의 관용표현 연구*, 태학사.
- 민현식(2003). “관용표현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재고”, *한국어 의미학* 12, 한국어의미학회, 17-50.
- 박만규(2002). “관용표현의 범주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의미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학* 41, 국어학회, 307-353.
- 박순원(2010). “김수영 시에 나타난 ‘돈’의 양상 연구”, *어문논집* 62, 민족어문학회, 253-277.
- 박영순(1985). *한국어 통사론*, 집문당.
- 박진호(2003). “관용표현의 통사론과 의미론”, *국어학* 41, 국어학회, 361-279.
- 방경원(2017). “전문어에서의 은유표현 연구- 주식시장 분석에서 사용되는 은유표현을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78, 한국독일언어문학회, 97-114.
- 방운규(2003). “돈 관련 속담에 나타난 한국인의 의식구조”, *겨레어문학* 31, 겨레어문학회, 1-34.
- 서보호(2020).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돈의 의미 연구-천승세의 「황구의 비명」과 조선작의 「지사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81, 현대문학이론학회, 139-158.
- 송현주(2015). *국어 동기화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 신진원·박기성(2001). “경제 텍스트에서의 은유 번역 사례 연구: 개념적 은유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2), 한국번역학회, 129-155.
- 심재기(1982). *국어 어휘론*, 집문당.
- 심지연(2009). “국어 관용어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지연(2016). “경제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한국어 의미학* 51, 한국어의미학회, 111-136.
- 안경화(1987). “한국어 속어의 유형에 대한 분석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영희(1995). “관용표현의 의미 구현 양상”, *국어학* 26, 국어학회, 171-200.
- 이동혁(2007). *한국어 관용 표현의 정보화와 전산 처리*, 역락.
- 이상억(1993). “관용표현과 합성어의 분석 및 어휘부 내외에서의 처리”, *어학연구* 29(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327-344.
- 임지룡(2008).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 임혜원(2018). “가상화폐의 은유적 개념화 양상”, *한국어 의미학* 62, 한국어의미학회, 1-26.
- 전혜영(2020). “‘물’을 근원 영역으로 한 은유 연구”, *이화어문논집* 52, 이화어문학회, 101-128.
- 정수진(2015). “은유의 문화 내 보편성과 다양성: 경제 기사를 대상으로”, 임지룡 외, *비유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태학사, 258-280.
- 제민경·구본관(2014). “경제 현상의 언어화를 통해 본 은유의 담화 구성력”, *한국어의미학* 43, 한국어 의미학회, 1-31.
- 최경봉(2014). *의미 따라 갈래지는 우리말 관용어 사전*, 일조각.

- 최지훈(2010). *한국어 관용구의 은유·환유 연구*, 해안.
- 황태목(2012).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돈’”, *우리문학연구* 38, 우리문화회, 543-537.
- 황화상(2011). “관용어의 문법 범주와 범주 특성: 용언형 관용어의 의미와 통사”, *언어와 정보사회* 1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7-51.
- Cruse, D. A. & W, Croft(2004). *Cognitive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김두식·나익주 옮김(2010). *인지언어학*, 박이정)
- Lakoff, G. & M. Johnson(1980/2003).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ibbs, R.(1994). *The Poetics of Mind: Figurative Thought, Language, and Understand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나익주 옮김(2003). *마음의 시학: 비유적 사고·언어·이해*, 한국문화사.)
- Gibbs, R.(2018). “Money talks because people move: Embodied metaphors in economic action”, *Society and Economy* 40, 349-364.
- King, K.(1999). *The Big Picture: Idioms as Metaphors*, Boston: Houghton Mifflin.
- Kövecses, Z. & P. Szabó(1996). “Idioms: A view from cognitive semantics”, *Applied Linguistics* 17(3), 326-355.
- Kövecses, Z(2010).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övecses, Z.(2018). “The power (and problem) of money”, *Society and Economy* 40, 365-376.
- Moon, R.(1998), *Fixed Expressions and Idioms in English*, Oxford: Clarendon Press.
- Nunberg, G., I. Sag, & T. Wasow(1994), “Idioms”, *Language* 70(3), 491-538.
- O’Connor, K. T. (1998). “Money and finance as solid, liquid, and gas in Spanish”, *Metaphor and Symbol* 13(2), 141-157.
- Radden, G. & K. U. Panther. eds.(2004). *Studies in Linguistic Motivation*, Berlin: Mouton de Gruyter.
- Silaški, N. & A. Kilyeni(2011). “The money is a liquid metaphor in economic terminology-A contrastive analysis of English, Serbian and Romanian”, *Professional communic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4(1-2), 63-72.
- Taylor, J.(2002). *Cognitive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임지룡·김동환 옮김(2005). *인지 문법*, 한국문화사.)

【국문소록】

이 연구의 목적은 관용표현에서 나타나는 ‘돈’의 은유 의미를 분석하고 특성을 논의하는 것이다. ‘돈’은 동전, 지폐와 같이 구체물을 가리키는 단어로 비용이나 재산, 물건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된다. 우리는 일상에서 겪는 경제적 경험을 통해 다양한 ‘돈’과 관련된 표현들을 사용한다. 이런 표현들에는 언중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개념이 드러난다.

사람들은 돈을 ‘물’과 같이 흐르고 고이고 새어 나가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하고 돈은 아주 힘이 강하여 사람의 통제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돈은 사람이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도구이므로 물건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또 ‘돈’은 사람, 동물, 식물과 같이 살아 있는 대상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사람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잡을 수 있는 동물, 뿌리를 내려 살 수 있는 식물로 표현된다. 우리의 삶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돈은 벌고 사용할 때 부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도덕적 가치는 돈은 더러워질 수 있고 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세탁할 수 있는 것으로 개념화한다.

이러한 ‘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언어에서도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돈’이 포함된 관용 표현을 분석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 관용표현, 돈, 비유적 의미, 개념적 은유, 물, 힘, 물건, 생명체, 부정

[ABSTRACT]

The Meaning of “Money” in Cognitive Linguistics

Kim Jung-a (University of Malaya)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money” in idiomatic expressions. “Money” refers to concrete objects, such as coins and bills, and is also used to measure the value of property or objects. Thus, in our daily economic experiences, we use various expressions related to money. These expressions reveal the concept of money. People think of money as flowing, accumulating, and leaking like “water,” and as so “powerful” that it escapes our control and strongly influences people. However, money is also a tool that people use to satisfy their needs, similar to food or a useful item. Additionally, money is recognized as an organism like an animal and humans or a plant that grows. As society considers money important, it must not be earned from and used for bad or wrong things. People think money is dirty and need cleaning up. People’s thoughts about “money” are reflected in language. This study examines common ideas about “money” by analyzing idiomatic expressions about money.

Keywords : idiomatic expressions, money, figurative meaning, cognitive metaphor, water, power, items, organism, unlawfulness

이 논문은 2021년 3월 10일에 접수 완료되어 2021년 3월 27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21년 4월 1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